

MARU

Interior Design

2002 **7** 씨에이프레스

SPECIAL ISSUE **클리닉 인테리어**

FOCUS 페라가모 청담동 본점

OVERSEAS INTERIOR David Hicks Design

INTERIOR 마틴 싯봉 매장 · 안나 수이 매장 · 루나파크

DESIGNER'S 강신재 · 최희영

LIFE & SPACE 성남 동다



ISSN 1599-5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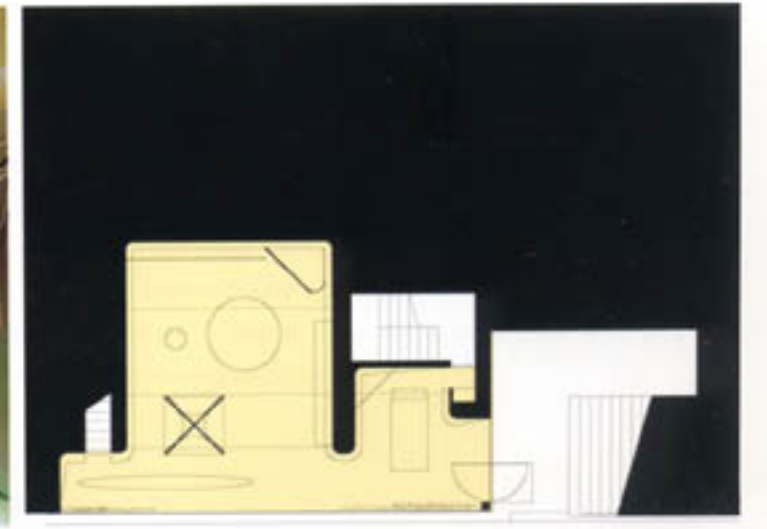


Martine Sitbon Shop

마틴 시봉 매장

취재 김인혜기자 사진 김재윤

설계 조만석, 제임스-슬레이드(조 슬레이드 아키텍처) + 최윤규(주, 기아건축사사무소) Cho Side Architecture + Ga,A Architects 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9-20 면적 60.74평 마감 유리, 역탄시 페인트, FRP, 실리콘, 폴리에스터 페인트 설계담당 조습(조 슬레이드 아키텍처), 김정희, 차광호, 김재용(주, 기아건축사사무소) 시공 대건축사사무소(한인애, 조두현) 가구 최금주, 이영현 유리페인트 이강





부유층의 부거지였던 청담동의 한 빌딩이 고급 소비의 중심지로 변화되었다. 높은 임대료와 한정된 용도가 인해 들어 올린 용도 제한 프락 레스토랑과 같은 고급 유흥가로 변화된 것이다. 마틴 샵은 백상도 기존의 계획의 가능성과 내부 디자인을 복무였다. 지난 5년 동안 세 번의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은 경사지에 있어 진입로 레벨에서 7m 정도 높이에 위치하고, 노면 레벨에서는 원래 반지하의 차고, 창고로 쓰여졌다. 이 반지하의 공간이 고급 부티크로 탈바꿈된 것이다.

진입로를 따라 두 단의 12.5m 폭과 3.6m 높이의 유리 표피가 7.2m 높이로 하나의 벽이 되어 서게 된다. 기본적으로 아래 단의 유리벽은 비교적 작은 상점 내부의 노출을 극대화하여 커다란 쇼 윈도우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유리벽은 경사지로 인해 만들어진 무거운 돌과 벽돌 등의 조적조로 만들어진 대지 주변의 용벽들과 같은 언장선상에서 그의 일부가 되어 있는 듯하지만 동시에 깨어지기 쉬운 것 같은 외관으로 돋보인다.

그리고 이 두 단의 유리벽이 낮에는 아래 부분이 강조되면서 상점 내부를 노출시키며 상부는 단순의 하늘과 주변 경관을 반사한다. 야에 반해 밤이 되면 이중 반사용되는 주변의 반사를 색서히 멈추며 유리 뒤 인공조명에 의해 후면에 칠해진 폴리에스터 페인트에 의해 강한 물질성을 발광하며 노출시키고 거리를 온온히 밝힌다.

기존 실내 공간은 치장하지 않은 콘크리트 벽으로 쌓여 있다. 예전에 처박을 7m 도로 높이 안에 위치시키며 생겨난 듯한 자투리 공간으로 층고 2m, 4m, 6m의 다양한 단면적 조건을 가진 공간이었다.



디자이너는 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공간의 형태적 변형을 최소화 하면서 마치 거칠고 노화된 피부가 보복스 주사를 맞아 새롭고 팽팽한 피부가 되듯, 간단히 베이지색 유광 우레탄 페인트의 새로운 내피를 기존 공간의 형태 위에 입혔다.

실내의 모든 모서리가 꺾어진 모서리가 아닌 둥근 면으로 공간감을 증폭시킨다. 그 결과로 마치 하나의 추형에서 나온 이음매가 없는 플라스틱 공간과 같은 효과를 낸다.